

200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재) 서울여성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1 |
| 1. 평가의 목적 | 1 |
| 2. 평가의 필요성 | 2 |
| 제2절 평가의 범위와 방법 | 3 |
| 1. 평가대상 기간과 대상 | 3 |
| 2. 평가방법과 절차 | 4 |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평가지표의 구성..... | 9 |
| 제1절 여성정책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 9 |
| 1. 의의..... | 9 |
| 2. 접근방법..... | 10 |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3 |
| 제3장 서울특별시 여성정책의 비전과 자치구 여성정책 현황..... | 17 |
| 제1절 서울특별시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 17 |
| 1. 여성정책의 비전 | 17 |
| 2. 여성정책영역별 목표 | 18 |
| 3. 평가영역과 지표 | 20 |
| 제2절 자치구 여성정책의 일반현황..... | 25 |
| 1. 자치구 인구현황 | 25 |
| 2. 주요시설 현황 | 27 |
| 3.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 31 |

제4장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34

제1절 평가결과의 요약 34

- 1. 결과분석 종합 34
- 2. 정책영역별 결과 요약..... 37

제2절 여성정책 분야별 세부항목 평가 결과.....71

- 1.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71
- 2. 양성평등문화 조성144
- 3. 여성경제활동지원 208
- 4. 여성사회참여지원 227
- 5. 소외여성복지향상 260
- 6. 보육서비스 증진..... 289
- 7. 여성건강증진분야 311
- 8. 가족복지 341
- 9. 신규사업 370
- 10. 수범사업 373

제3절 여성정책 영역별 문제 도출..... 399

- 1.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399
- 2. 양성평등문화 조성 401
- 3. 여성경제활동지원.....402
- 4. 여성사회참여지원.....403
- 5. 소외여성복지향상.....403
- 6. 보육서비스 증진 404
- 7. 여성건강증진분야.....406
- 8. 가족복지.....407
- 9. 신규사업.....407
- 10. 수범사업.....408

제5장 자치구 여성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409

- 1.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409
- 2. 양성평등문화 조성412
- 3. 여성경제활동지원.....418
- 4. 여성사회참여지원.....420
- 5. 소외여성복지향상.....422
- 6. 보육서비스 증진424
- 7. 여성건강증진분야.....427
- 8. 가족복지.....429
- 9. 수범사업.....431

※ 참고문헌432

※ 부록

요 약

I. 서론

○ 여성정책평가의 목적은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성과가 무엇이고, 또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정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 시민, 여성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정책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정부업무의 양적 증가와 복잡성이 크게 증대, 둘째,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정책과정의 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어 이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셋째, 사회의 복잡화로 인해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사업이 경험이나 통찰력에만 의존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넷째, 정책의 양이 증가하고 그 추진비용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수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가들에 대한 관리 책임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 사회과학연구의 방법을 정부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망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있음

-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고 최근 평가를 의무화하려는 제도화 노력으로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2001)이나,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평가를 통해서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명시하고 있어 여성정책 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함. 이는 2004년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진데 대하여 자치구 여성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평가방법은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음

- 양적평가는 여성정책 수행의 추진실적을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근거로 계량화하여 평가하였음

- 질적 평가는 해당 전문가에 의뢰하여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자료에 담긴 내용을 정성평가를 통하여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

○ 평가절차는 지표구성, 평가지표 적용의 구체화, 자료수집, 평가, 평가완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표구성은 4~5월에 2회의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평가영역과 대상을 설정하였다. 4월 중 2004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목표치에 도달한 지표가 제외되었고,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지표를 종합하여 2004년 34개 항목 84개 지표에서 20개 항목, 64개 지표로 축소함

- 자료 수집은 1차 9월 15일, 2차는 10월 17일까지로 1, 2차에 걸쳐 이루어짐

·1차 자료 수집은 자치구 홈페이지 평가를 위해 홈페이지 주소를 취합하고, 곧 홈페이지 평가를 시행함

·2차로 각 영역별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재)서울여성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발송하고 평가를 시작함

- 각 부문별, 자치구별 평가 작업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11월 23일 서울시 심의회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함

·양적 평가 및 질적 평가를 취합하여 영역별, 자치구별 우수구를 확정함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향상구 선정을 위해 서울시 여성위원 및 평가 참여자가 포함된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대상 자치구를 확정함

II. 여성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

1. 여성정책의 의미

○ 여성정책이란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능력을 개발·활용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로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여기서 여성정책의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범위를 가정하며 뿐

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까지를 포함함

2.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 여성정책의 접근방법은 WID적 관점, GAD적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음. WID(Woman in Development)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인 반면, GAD(Gender and Development)적 관점은 여성정책에 사회적 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여성이 사회에서 주변적인 계층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류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임

○ 여성정책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요약하면, 국가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다양한 접근을 방법이 동시에 병행되고 있는데, 최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은 여성정책의 주류화에 보다 접근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여성·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여성복지정책은 WID적 관점의 정책으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에서 약 70%가 이 관점에 기초하고 있어(조연숙, 2002)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3. 선행연구의 검토

○ 여성정책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가운데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역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노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대표적으로 여성단체연합(2002)이 16개 광역시도 여성정책의 수행체계로서 전담기구, 여성관련 예산, 성 주류화를 위한 주요 정책, 주요 여성정책에 대해 비교·평가한 연구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강원도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즉 성주류화를 전도역에 확산하기 위해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여성정책을 평가하였는데 평가대상과 방법은 4대 분야 9개 시책에 대해 평가항목선정, 항목별 배점, 각 항목별 세부지표 설정과 배점을 실적으로 점수화하는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평가는 1차적으로 각 시군의 교차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2차평가를 실시함

으로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 서울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도 자치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평가내용은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 영역을 포함하여 9개 여성정책영역 및 여성정책업무 관련 각종 특수사업 사업으로 총10개영역 1000점을 만점으로 한 양적평가를 실시함. 평가는 평가지침에 따라 자치구 내부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고 1차 서면평가와 심사위원회에 의한 우수구 선정(2차), 최종 결과 산출(3차)에 따라 이루어짐.

4. 평가영역과 지표

○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영역은 서울시여성정책4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자치구의 여성정책추진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사업분야로 양성평등문화 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소외여성복지향상, 보육서비스증진, 여성건강증진, 가족복지, 신규사업, 수범사례의 10개 분야임

○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각 정책영역별로 대상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산출(outputs), 즉 추진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뽑아 실적의 많고 적음을 등급화하여 평가지표로 설정함

III. 평가결과 요약

1. 평가결과 종합

○ 2005년도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여 100% 참여율을 보임

○ 평가점수 총 1000점 만점에 911.6점이 최고 점수이고, 평균은 743.5점임.

- 지난 2004년과 비교하여 평균 35.1점이 상승하였고, 최고 점수를 획득한 구는 지난해에 비해 약 55.6점 상승함

- 반면, 최소 점수는 576.0점이나 이는 지난해 보다 63.5점 상승한 수치임

<표> 2004-2005년 여성정책 평가결과 비교

| 구 분 | 2005년 | 2004년 | 비고 |
|-------|--------|--------|--------|
| 총 점 | 1000점 | 1000점 | 동일 |
| 최대 점수 | 911.6점 | 856.0점 | ↑ 55.6 |
| 최소 점수 | 576.0 | 512.5점 | ↑ 63.5 |
| 평균 점수 | 743.5 | 708.4점 | ↑ 35.1 |

- 종합평가 자치구 순위는 도봉구가 1위로 총점 911.6점을 획득함.
- 우수구는 관악과 동작 2개구, 모범구는 금천, 중랑, 양천, 성동, 영등포 5개구며, 향상구는 동대문, 종로, 용산 3개구임

<표> 시상 대상 자치구

| 구분 | 자치구 |
|-----|--------------------------|
| 최우수 | 도봉구 |
| 우수 | 관악구, 동작구 |
| 모범 | 금천구, 성동구, 중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 향상 | 동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

2. 정책영역별 결과 요약

- 자치구 여성정책의 영역을 10개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각 영역별 자치구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점수배점은 영역별 비중에 따라 차이를 둠
- 원점수는 전체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하였으나 식별의 편의성과 일관된 비교를 위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영역별 최소점수, 최대점수, 그리고 평균값을 구함

<표>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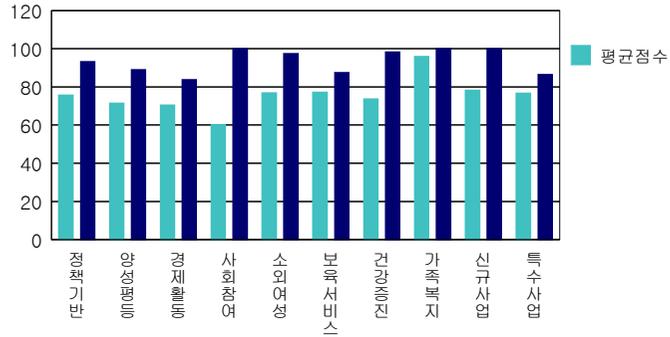
| 구 분 | 원점수 | 환산점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총 계 | 1,000 | 1000 | 463.5 | 935.2 | 75.7 | - |
|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 270 | 100 | 44.3 | 93.3 | 71.6 | 12.648 |
| 양성평등문화조성 | 80 | 100 | 45.0 | 89.0 | 70.6 | 11.921 |
| 여성경제활동지원 | 80 | 100 | 25.0 | 83.8 | 60.3 | 16.720 |

| | | | | | | |
|----------|-----|-----|------|-------|------|--------|
| 여성사회참여지원 | 70 | 100 | 30.0 | 100.0 | 76.9 | 14.975 |
| 소외여성복지향상 | 80 | 100 | 42.5 | 97.5 | 77.3 | 15.616 |
| 보육서비스증진 | 140 | 100 | 58.4 | 87.6 | 73.8 | 7.392 |
| 여성건강증진 | 60 | 100 | 93.3 | 98.3 | 96.0 | 1.600 |
| 가족복지 | 60 | 100 | 39.3 | 100.0 | 78.3 | 19.341 |
| 신규사업 | 60 | 100 | 16.7 | 100.0 | 75.3 | 28.646 |
| 특수사업 | 100 | 100 | 69.0 | 86.5 | 76.8 | 4.943 |

주: 표준편차는 각 관찰치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편차를 표준화한 수치임. 표준편차가 0인 경우 모든 점수가 평균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함.

- 10개영역의 전체평균은 75.7점임
-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여성건강증진으로 평균 96.0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반면,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여성경제활동지원으로 평균 60.3점으로 나타나 여성정책 영역 중 여성경제활동 분야의 실적향상이 보다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
- 정책영역별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치구는 다음과 같음
-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양성평등문화조성, 여성사회참여지원 영역에서 도봉구가, 여성경제활동지원 영역은 광진구, 소외여성 복지향상과 보육서비스증진 영역은 관악구가 최고점수를 획득하였음
- 여성건강증진 영역은 송파구, 가족복지 영역은 도봉구가 100점 만점을 획득한 이외에도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가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

영역별 평균점수, 최고점수



1)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1.6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93.3점으로 도봉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44.3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종로구(73.9), 성동구(83.2), 중랑구(87.9), 성북구(88.4), 강북구(75.7), 도봉구(93.3), 은평구(80.3), 양천구(76.3), 금천구(77.2), 영등포구(74.7), 동작구(86.0), 관악구(85.5), 송파구(72.8)로 13개 자치구임.

2) 양성평등문화 조성

○ 양성평등문화 조성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0.6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89.0점으로 도봉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45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용산구(75.5), 성동구(84.8), 동대문구(77.5), 중랑구(82.8), 성북구(76.6), 강북구(80.0), 도봉구(89.0), 은평구(71.1), 양천구(79.0), 구로구(79.4), 금천구(80.4), 영등포구(76.3), 동작구(71.8), 관악구(87.5)로 15개 자치구임.

3) 여성경제활동 지원

○ 여성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60.3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83.8점으로 동대문구와 금천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25.0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종로구(62.1), 용산구(74.8), 성동구(62.3), 광진구(63.3), 동대문구(83.8), 중랑구(67.9), 강북구(75.0), 도봉구(74.9), 양천구(67.1), 강서구(69.4), 구로구(62.4), 금천구(83.8), 동작구(82.5), 관악구(80.6), 강남구(61.4)로 15개 자치구임.

4) 여성사회참여 지원

○ 여성사회참여 지원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6.9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100점으로 도봉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30.0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종로구(88.1), 성동구(79.0), 광진구(78.9), 동대문구(88.0), 중랑구(84.3), 성북구(85.4), 도봉구(100.0), 양천구(83.0), 강서구(84.3), 구로구(88.1), 금천구(94.6), 영등포구(79.0), 동작구(88.1), 관악구(94.6)로 14개 자치구임.

5) 소외여성복지 향상

○ 소외여성복지향상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7.3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97.5점으로 관악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42.5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종로구(95.0), 용산구(87.5), 광진구(83.8), 동대문구(91.3), 중랑구(83.8), 성북구(85.0), 도봉구(92.5), 양천구(95.0), 강서구(80.0), 구로구(87.5), 금천구(91.3), 영등포구(93.8), 동작구(88.8), 관악구(97.5)로 14개 자치구임.

6) 보육서비스 증진

○ 보육서비스증진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3.8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87.6점으로 관악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58.4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종로구(76.6), 동대문구(74.6), 중랑구(74.9), 강북구(78.8), 도봉구(87.2), 은평구(75.0), 강서구(75.1), 구로구(76.0), 금천구(82.9), 동작구(83.6), 관악구(87.6), 송파구(77.5)로 12개 자치구임

7) 여성건강 증진

○ 여성건강증진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96.0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98.3점으로 광진구, 서대문구, 동작구, 송파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93.3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종로구(95.0), 중구(95.0), 용산구(96.7), 성동구(96.7), 광진구(98.3), 동대문구(96.7), 중랑구(95.0), 성북구(95.0), 은평구(96.7), 서대문구(98.3), 마포구(96.7), 양천구(96.7), 강서구(95.0), 구로구(95.0), 영등포구(96.7), 동작구(98.3), 관악구(96.7), 서초구(96.7), 강남구(95.0), 강동구(96.7)로 5개 구를 제외하고 20개 자치구가 평균점수를 상회하였음

8) 가족복지

○ 가족복지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8.3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100.0점으로 도봉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39.3점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용산구(89.2), 성동구(98.3), 동대문구(87.5), 중랑구(93.8), 강북구(90.5), 도봉구(100.0), 양천구(95.5), 강서구(87.5), 구로구(93.8), 금천구(96.7), 영등포구(98.3), 동작구(95.0), 관악구(93.8), 강남구(78.7), 송파구(84.5)로 15개 자치구임

9) 신규사업

○ 신규사업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5.3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100점으로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

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의 11개 자치구가 10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노원구가 20점미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음

- 이 외에도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로 용산구(83.3), 성동구(88.3), 동대문구(88.3)가 있음

10) 특수사업

○ 특수사업 영역의 자치구 전체 평균은 100점을 기준으로 76.8점임

- 이 분야의 최고점수는 86.5점으로 도봉구가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69.0점을 획득하였음

-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치구는 용산구(76.9), 광진구(76.8), 동대문구(76.8), 도봉구(86.5), 노원구(77.5), 양천구(84.4), 구로구(80.0), 금천구(83.3), 영등포구(83.8), 동작구(84.8), 관악구(82.0)로 11개 자치구임

IV. 문제와 향후과제

1. 영역별 문제점

○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분야의 평가를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함

- 주요 정책결정·집행 과정에의 여성 결정권이 낮음

-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및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참여비율에서 여성공무원의 하위직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여성공무원이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양성평등문화 조성 분야의 평가를 통해서 볼 때 지적된 문제는,

-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정의 및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주간, 여성학강좌, 여성문화 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함

-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의 경우 총 289명의 공무원이 전문교육에 참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여성경제활동지원 분야의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는,

- 여성경제활동지원 분야에 대한 총체적 접근 노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 특히 실적과 성과의 연계성 미흡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실제 여성경제활동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환경에도 일률적인 실적적용은 자치구의 경제적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외여성복지향상 분야의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는,

- 소외여성향상 복지분야만 전문가의 정성평가 비율이 높게 배정되어 있어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타 분야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임
- 소외여성복지 분야의 경우 수범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범사업에 대한 정의에서 자치구마다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음
- 민간단체 등 사업지원 건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민간단체 지원인지 혹은 여기에서의 사업내용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해석이 어려웠음
- 소외여성의 범위를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한정하여 저소득층·장애·노인 등의 여성이 제외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보육서비스향상 분야의 평가결과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은,

- 자치구 자체 보육료지원비용에 있어서 자치구의 편차가 큰 것을 지적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보육담당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음
- 각종 보육점검 및 관리 실적이 우수하여도 실제 보육의 안전성과 연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여성건강증진 분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 여성건강증진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가 평균이상 점수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의미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

- 자치구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수행이 부족하다는 점

-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모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여성건강생활지원 사업의 경우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경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금연 캠페인 같은 경우 금연의 피해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자대학교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점

○ 가족복지분야의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의 경우 시비와 국비를 제외한 구비로 투입되는 예산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임
- SOS 가정상담소 이용 활성화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홍보에 치중한 사업을 시행하였음
- 건강가정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신규사업(화장실개선)분야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 화장실 개선대책수립여부의 경우 자치구마다 매우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점,
-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홍보자료를 작성하는 등 자치구의 독자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실적이 있으나 이를 평가 지표에 까지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수범사례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특수시책이라기 보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범사업 평가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자치구의 지리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된 전략적이고 특성화된 사업이 미흡함
- 특성화 사업의 목표설정이 모호하거나 아예 목표가 없는 사업의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2. 정책영역별 향후 과제 - 추진기본방향

1)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보유
-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물질적 기반 확보
- 양성평등 실현에의 효과성

2) 양성평등문화 조성

-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
- 정책 담당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 자치구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관련된 지역주민, 여성의 요구를 파악, 수렴하고 있는 정도(조사연구나 간담회 등)
- 사업기간과 연속성 (1회성 사업 지양)
- 소외여성, 저소득층 여성 접근성 (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가족구성별, 세대별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도)
- 자치구내 공공기관 및 기타 기구, 여성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정도
-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구, 인력, 시설, 인프라

3) 여성경제활동 지원

- 서울지역 각 구는 개별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관련 시설(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내 고용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관련사업을 확대하거나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음

- 다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각 구의 여성의 요구를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여성 경제활동 지원부문의 경우 구 차원의 단독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으므로 서울시가 경제활동 관련 수요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하여 구의 사업을 견인하는 기능을 담당할 필요 있음

- 일반인 대상 사업에서 여성이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 때 반드시 성별 분리통계를 산출하도록 서울시가 지도할 필요 있음.

4) 여성사회참여 지원

- 새마을부녀회, 전물군경미망인, 적십자사자치구지부, 바르게살기운동여성분과, 자유총연맹 포순이 등의 여성단체 지원 외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할 것임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자치구가 자치구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예산지원 할 것을 강조함

- 여성들이 전문성을 갖추어,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하도록 강조해야 할 것임

- 양성평등의식 의식 확산이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함

5) 소외여성복지향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모든 대상계층을 포괄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 필요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의식개선 이외의 원인파악을 통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 복지적 차원의 지원은 자치구 자체가 직접적 서비스를 할 수는 없고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함

6) 보육서비스의 증진

○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자치구의 보육시책은 수요자의 욕구와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함

○ 보육 서비스 평가가 보육의 실재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되기 위해서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7) 여성건강증진

○ 지역주민의 연령별 분포도, 직업 특성 등 통계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에 적절한 연령층별, 유병질환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소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변화해야 할 것임. 지역주민의 교육 요구도도 충분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টে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함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과 같은 대상계층은 지역에서의 1차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때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시

켜나가는 할 것임

○ 향후 여성건강증진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건강지표의 개발, 여성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지역구 여성의 건강요구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어 지역특성을 살리고 여성이 원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8) 가족복지

○ 가족을 위협하는 문제(혹은 다양한 복지욕구)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서비스는 문제해결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함

○ 가족의 문제는 복합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역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문제가족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적 접근이 필요함

○ 현재 자치구 사업의 대다수는 아동, 청소년 등 가족의 개별성원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로 가족복지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재의 경제적 지원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함

○ 건강가정육성을 위해서는 고 위험 가족에 대한 사전 개입이 강화되어야 함

9) 수범사업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

○ 자치구의 자원역량(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인구구성(성별, 연령별 등), 지역특성 등을 파악하고 자치구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범사업을 통해서 실현 할 수 있도록 연계

○ 자치구 수범사례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업목적이 완성 되면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